# 2022

수능 영어 기출분석 가이드

SKYEDU 영어강사 이상인



영어강사 이상인 연세대학교 졸업

현 스카이에듀 인강 영어강사 현 대치 다원교육 영어영역 강사 현 대치이강학원(대치)영어영역 강사 현 대치 세정학원(대치) 영어영역 강사 현 광릉 한샘학원 영어영역 강사 전 오르비 클래스 인강 영어영역 강사

#### 들어가는 말

과거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 시장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 1. EBS 직접연계
- 2. 영어 절대평가

결과적으로 수능 영어는 영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점점 더 EBS 지문과 내용을 암기하는 단순 암기과 목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영어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1.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 2. EBS 직접연계 → 간접연계로의 전환

이렇게 되면...

단순 EBS 암기식의 학습법은 더 이상 수능 영어의 승부처가 아닙니다.

영어 1등급을 위한 여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해 실력 향상이 관건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장 해석이 아닌 평가원의 각 유형별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맞는 접근방 향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그에 맞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가원 기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출분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문제 분석을 통해 기출 분석의 방향성 정확하게 확립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며 영어강사 이상인

#### □ 우리는 왜 기출 분석을 해야 할까?

- 평가원 발표
- 1.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 2. EBS 직접연계 → 간접연계로의 전환
- 간접연계의 의미?
- ☆ 2018학년도 간접연계 예시

#### ◆ 2018학년도 수능특강 11강 5번

####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times, it seems that people simply like to try new things — they are interested in variety seeking, in which the priority is to vary one's product experiences, perhaps as a form of stimulation or to avoid being bored. Variety seeking is especially likely to occur when people are in a good mood, or when there is relatively little stimulation elsewhere in their environment. In the case of foods and beverages, variety seeking can occur due to a phenomenon known as sensory-specific satiety. Put simply, this means the pleasantness of a food item just eaten drops while the pleasantness of uneaten foods remains unchanged. So even though we have favourites, we still like to Ironically, consumers may actually switch to less preferred options for variety's sake even though they enjoy the more familiar option more.

\*satiety: 포만(감)

- 1 store some extra food
- 2 stick to familiar brands
- 3 sample other possibilities
- 4) buy more healthy food items
- (5) hide our opinions from others

#### ◆ 2018학년도 수능 22번

####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nsory-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 ①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daily life
- ②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
- ③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
- ④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 s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

※ 사실 시험장에서 간접연계를 느낄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BS 연계율이 줄어들고 게다가 직접연계가 간접연계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EBS 연계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동안 부족한 영어 공부량을 EBS 직접연계에 의존해서 수능 영어시험을 봤다면..

이제 수능 영어에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해 실력의 향상이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문제 유형별 평가요소 및 실제 출제 경향에 맞춰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체화하고 그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수이다.

이제 우리는 기출분석의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한 논리적인 코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평가원 기출 분석 공부법

STEP 1. 지문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 1. 단어에 집중해라!

☞ 문장을 해석하다보면 모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어색해지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된다. 사전을 찾아서 문장내에서의 정확한 의미의 쓰임을 확인하고 암기하라!

#### 2. 지문에 나오는 중요한 구문을 체크하라

☞ 지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평이한 문장구조 외에 특이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언제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STEP 2. 유형별 지문의 논리적 접근방식을 체화하라!

#### 1. 각 유형마다 평가원의 평가요소 및 출제 방향성을 분석하고 체화하라!

☞ 각 유형마다 평가원은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요소가 있고 그에 따라 문제를 출제한다. 또한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평가원의 평가요소 및 실질적인 출제 방향성을 분석하고 체화해야 한다.

#### 2. 우리가 체화한 방법을 가지고 5~7개년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고 확인하라!

☞ 이제 평가원 기출을 공부할 준비는 끝났다. 각 유형별로 5~7개년 문제들을 풀면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

# **CHAPTER 2**

# 필자의 의도가 중요해

[대의파악, 빈칸추론]

- □ 대의파악 유형 [18, 20, 21, 22, 23, 24번]
- 평가원이 제시하는 출제 방향

주어진 지문을 읽고 전체적인 주제와 요지를 파악한 뒤 핵심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필자의 의도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 1. 대의파악 유형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글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또는 의문문이나 명령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필자의 의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
- 2.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또는 역접의 연결어(예: however) 가 제시된 경우 그 이후 부분을 중심으로 지문에서 제시되는 반복적인 어구 또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분석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지를 선택해야 한다.
- 3.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을 때 오답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오답의 경우 지문에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문과 일부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기도 하지만, 중심 소재나 주제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즉, 오답은 주로지문의 일부 내용 요소를 다루지만,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것을 언급하거나 중심 소재나 내용 요소를 언급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접근 전략!

- 1. 대의파악 유형의 지문은 필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글이므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 2.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흐름을 mapping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3. 영어에서 필자의 의도를 담은 글은 크게 3가지의 흐름의 방향성을 갖는다.

1. 삼단논법	2. 수미쌍괄식	3. 통념 → 반박	
논리 전개 1 ↓ 논리 전개 2 ↓ 결론	필자의 의도 ↓ 근거 & 부연설명 ↓ 결론 [필자의 의도]	사회적 통념	

#### 1) 삼단논법

#### $A \rightarrow B \rightarrow C$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논리적 전개를 통해 필자의 의도를 도출해 내는 방식

#### [2021학년도 수능 20번 필자의 주장 유형]

#### 논리적 전개 1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1 1** 

#### 논리적 전개 2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 1. 전문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 2. 전문지식은 영역 한정적이다.
- 3.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다.
- 4. 모든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downarrow \downarrow$ 

#### 논리적 전개 3 [결론]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우리는 선택한 영역에 우리의 전문지식을 집중해야 한다

#### 2) 수미쌍괄식

필자의 의도로 지문을 시작해서 근거를 잡고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2021학년도 수능 24번 제목 유형]

#### 1. 필자의 의도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촉각은 모든면에서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1** 

#### 2. 근거 및 부연설명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실험을 통해서 시간이 개입되기 전에는 그는 그 물체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으나, 촉각이라는 지각에 시간이 더해지게 된 후 그 물체를 한번에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변화를 보여줌

 $\downarrow \downarrow$ 

#### 3. 결론 [필자의 의도]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촉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촉각이라는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

#### 3) 통념 → 반박

필자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 사회적 통념을 말하고 그에 대한 반박 및 자신의 의도를 말하면서 방향성을 바꾼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근거를 잡고 자신의 의도로 결론을 내린다.

#### [2016년 모의고사 기출]

#### 1. 사회적 통념

We tend to assume that the way to get more time is to speed up.

우리는 더많은 시간을 얻는 방법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제시

#### 2. 반박 및 필자의 의도

But speeding up can actually slow us down.

역접의 연결어를 통해 반박하고 필자의 의도 제시

#### 3. 근거 및 부연설명

Anyone who has ever rushed out of the house only to realize that their keys and wallet are sitting on the kitchen table knows this only too well. And it's not just our efficiency that is reduced.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suffers too, as we become less aware or 'mindful.' Have you ever eaten an entire meal without tasting any of it? Hurrying up doesn't just give us less time, it can also steal the pleasure and benefit from the time that we do have. For many of us, hurrying is a way of life. Some of us enjoy the thrill that it gives us while others are driven crazy by the constant pressure and feel that their lives are speeding up to an unacceptable degree.

필자의 의도에 대한 근거로서 서두르면 놓치게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

#### 4. 결론[필자의 의도]

Either way, there are almost certainly areas of our life that could be <u>enhanced by a little</u> go-slow behavior.

우리의 삶에는 약간 느린 행동에 의해 강화되는 영역이 있다.

#### 4.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치가 있다.

#### 1) 역접의 연결어(but, however etc)를 체크하라!

역접의 연결어는 글의 흐름의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 [2016학년도 수능 34번]

Long before Walt Whitman wrote *Leaves of Grass*, poets had addressed themselves to fame. Horace, Petrarch, Shakespeare, Milton, and Keats all hoped that poetic greatness would grant them a kind of earthly immortality. Whitman held a similar faith that for centuries the world would value his poems. But to this ancient desire to live forever on the page, he added a new sense of fame.

휘트먼 이전부터 시인들♀️ 명성을 추구했고, 시적 위대함이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희망함.

그러나 휘트먼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의 명성을 추가함

[우리는 휘트먼이 어떤 새로운 의미의 명성을 추구했는지를 찾아야하고 이것이 필자의 의도다!]

#### 2) 반복된 어구에 집중하라!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같은 어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비슷한 맥락의 어구가 반복된다면 그것이 필자의 의도다

#### [2019학년도 6월 31번 - 오답률 75.4%]

Although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by the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rices \_\_\_\_\_\_. On any particular day we find that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However, this price may be different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is much more flexible from day to day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If, for example, bad weather leads to a poor potato crop,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will go up and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Thus, these prices do reflect the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es. Although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s in demand and supply, they d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가격은 바뀌게 되고 유동적이고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어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 3)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면 앞문장은 필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영어지문은 짧다.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한다. (예를 들어서, ~학자의 연구는 보여준다 ~, 실험 etc)

#### [2021학년도 수능 24번]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이 문장부터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구체화 진술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가 있으면 핵심적인 힌트의 역할을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20번]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but을 통해 지문의 방향성을 바꾸며 필자의 의도를 말하고 **What's more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정** 보를 제시하며 필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구체화 한다.

#### 4) 의문문

영어 지문에서 의문문은 결코 필자가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의문문의 답을 지문에서 찾아야하고 그 답은 필자의 의도이다.

#### [2017학년도 수능 33번]

Grief is unpleasant.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Why accept it even when the loss is real? Perhaps we should say of it what Spinoza said of regret: that whoever feels it is "twice unhappy or twice helpless." Laurence Thomas has suggested that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s" (emotions like grief, guilt, resentment, and anger,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to believe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lies in their providing a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

슬픔은 유쾌하지 않다. <mark>심지어 상실이 진짜인데도 왜 우리는 슬픔을 받아 드리는가?</mark> [필자는 우리가 슬픔을 받아드리는 이유에 대해 글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5) 명령문(should etc)

명령문은 당연히 필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 [2021학년도 수능 20번]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 ○ 2021학년도 20번 문제

####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 ① 자신에게 의미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 ② 전문성 함양에는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
- ③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 ⑤ 전문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해석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는 그 자체의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는 언어를 말하거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아는 것과 같은 어떤 분야에서는 그냥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요구한다. 게다가 전문성이란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된다. 우리가 한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전문성은 관련 영역으로 오직 불완전하게 이어질 뿐이며,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서조차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흔하고/흔하거나 중요한 선택 영역과 우리가 배우고 선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영역에 우리의 전문성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어휘] expertise 전문성 / domain 영역 / concentrate 집중하다

#### ○ 지문분석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필자의 의도의 시발점. 첫문장에서 필자는 의도의 시발점으로서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궁금해 해야하고 그것이 필자가 이 문장을 쓴 의도이다.]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두 번째 문장에 '우리는 단지 살아감으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지만 but을 넣어 방향성을 바꾼다. 역접의 연결어 but이 이끄는 부분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전문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한다.' [첫 문장에서 말한 댓가가 나온다.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말을 한다.]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이 문장에서 앞문장에 이어서 전문지식은 상당한 노력과 훈련 외에도 영역 한정적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전문지식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전문지식은 영역 한정적이다)]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필자의 의도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전문지식은 관련된 영역에도 완전하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든영역에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없고 가질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으로서 should를 사용해 '우리는 우리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필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논리전개 1]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댓가가 따른다. ↓

[논리전개 2] 전문지식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며 영역 한정적이다.

[논리전개 2] 모든영역에서 전문지식을 가질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문지식을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위의 논리적 mapping구조의 흐름을 볼 때 필자는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전문지식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2021학년도 21번 문제 [신유형]
- 이상인T가 제시하는 접근 전략
  - 1. 밑줄 친 부분에 집착하지 마라!
  - 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의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 2. 21번 신유형 문제는 대의파악 유형이다.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밑줄 친 부분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 21. 밑줄 친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 1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 2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ur for nature
- 3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 4)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
- 5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

#### ○ 해석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가를 갖게 될 때까지, 사냥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한 자를 미화할 것이다."라는 아프리카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권력, 통제, 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환경 저널리스트는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들은 인도 야생 자연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인간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 숲, 습지, 황무지, 해안 지대, 환경 민감 지역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수요를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인구 증가를 줄이는 것이든,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든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인권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차이가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어휘] glorify 미화하다, 기리다 / put across ~ to ... ~을 ...에게 이해시키다 /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한 / disposable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 accelerating 가속화되고 있는 / violation 침해, 위반

#### ○ 지문 분석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논리전개 1] 필자는 첫문장에서 사자가 그들의 역사가를 갖기 전까지는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사냥을 미화시킬 것 이라는 논리를 언급한다. 이 말에선 약간의 언어적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역사가가 있어야지만 사냥의 미화는 멈춘다.'는 말이 된다.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

[논리전개 2]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바로 이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관점을 이해시켜야 하고 야생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언론인들이 역사가의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견재해서 자연을 지켜야 한다]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논리전개 3] 인간 소비는 완전하게 지속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바꾸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결론] 역접의 연결어 but을 통해 방향성을 바꾸며 이러한 인권은 옳지 않은것이므로 환경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논리전개 1 비유] 사자는 역사가가 있어야 사냥의 미화를 멈춘다.

[논리전개 2] 환경 언론인들이 역사가의 역할을 하여 법 재정하는 사람들을 견재해야 한다.

[논리전개 3] 인간의 소비는 지속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있다.

[결론] 자연을 침해하는 인간의 권리는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밑줄 친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바꾸게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이 된다.

- □ 빈칸 유형 [31 ~ 34번]
- 평가원 출제 방향
  - 1. 글의 핵심적인 내용(필자의 의도)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2. 빈칸은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 1) 글의 핵심적인 내용 및 그에 대한 비유적 표현
  - 2) 핵심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 평가원이 말하는 빈칸 유형을 위한 학습 훈련 방향
  - 1. 빈칸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지문의 중심소재 및 주제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빈칸추론 문항의 빈칸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문의 중심내용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정보와 관련이 있다.
  - 2.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학술적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3. 빈칸추론 문항은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깊이 있는 어휘 학습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빈칸을 위한 어휘 학습 시에는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 하나만 연결하여 외우는 학습법을 지양하고, 사전을 통해 영어 단어의 다양한 쓰임을 확인하면서 문장과 지문 속에서 해당 어휘의 쓰임을 이해하는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모르는 어휘를 접했을 때 바로 사전이나 해설서를 참고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 결국 평가원이 강조하는 것은

- 1. 지문의 논리적 흐름 안에서 필자의 의도를 찾아라
- 2. 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 안에 있다.
- 3. 어휘가 가진 다양한 뜻을 지문 내에서 확인하고 암기해야 한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빈칸추론 거시적 접근 전략

#### 1. 인정할건 하고 들어가자!

- 1. 빈칸은 아무데서나 뚫리지 않는다.
- 필자의 핵심의도를 담고 있는 부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세부내용에서 뚫린다.
- 2.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다.
- 출제자가 아닌 이상,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wording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정확한 wording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
-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찾아서 지우자! (소거법)

#### 2. 실제적 접근전략

- 1. 지문의 논리적 흐름 체크 및 세부내용 파악
- 2. 필자의 의도 파악
- 3. 빈칸 문장에 선지 대입하며 소거법 사용하여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지워라
- 3.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1.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 2. 필자의 의도는 한번만 들어나지는 않는다.
- 3. 근거는 반드시 지문안에 있다.
- 4. 논리적 장치도 힌트를 준다. (연결어, 대명사)
- 5. 지문의 내용이 두 가지를 비교할때는 공통점 대비 차이점에 집중하라!

#### ○ 2021학년도 31번 문제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the temple functioned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and redistribution.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from the temple complexes at Uruk suggests that token use and consequently writing evolved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Given the lack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Uruk-period domestic sites, it is not clear whether individuals also used the system for \_\_\_\_\_\_\_\_. For that matter, it is not clear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The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early tablets is consistent with administrators needing a lexicon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literacy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 1 religious events
- 2 personal agreements
- (3) communal responsibilities
- (4) historical records
- ⑤ power shifts

#### ○ 해석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 모델에서 사원은 상품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장하는 행정 당국으로서 기능했다. Uruk의 사원 단지에서 나온 행정용 (점토)판의 발견은 상징의 사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글자가 중앙집권화된 경제 지배의 도구로 발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Uruk 시기 가정집의 터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들이 또한 사적인 합의를 위해 그 체계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그것의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초기의 판에서의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은 행정가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이 필요했던 것과 일치한다. 쐐기 문자가 더욱 추상적으로 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이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졌음이 틀림없다.

[어휘] administrative 행정의, 관리의 / authority 당국, 권위, 권한 / commodity 상품, 물품 / redistribution 재분배, 재배포 / tablet 판, 평판(平板) / complex (건물) 단지, 복 합 건물 / token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식으로서의) 상징, 대용 화폐, 기념물 / governance 지배, 관리 / domestic 가정의, 집안의, 국내의 / identifiable 인식가능 한 / pictogram 그림 문자 /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는 / intelligible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 nonliterate 읽고 쓸 수 없는

#### ○ 지문분석 [이 문제는 빈칸의 두가지 출제 유형중 세부내용 파악 유형이다]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the temple functioned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and redistribution.

필자는 첫 문장에서 수메리안 경제에서는 사원이 행정당국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하면서 사원의 기능을 강조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from the temple complexes at Uruk suggests that token use and consequently writing evolved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두 번째 문장에서 사원에서 행정적인 tablet(점토판)의 발견이 상징의 사용과 글쓰기가 중앙집권적 경제지배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사원이 글을 통해서 중앙집권화된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iven the lack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Uruk-period domestic sites, it is not clear whether individuals also used the system for \_\_\_\_\_\_\_. For that matter, it is not clear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여기서 사원과 대비되는 관점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domestic sites(가정의 부지)이다. 대비되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가정에서는 개인들이 빈칸에 대한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앞서 빈칸의 관점에서 지문이 대비되는 두가지를 비교할때는 차이점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보면 사원과 가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사원은 글쓰기 체계가 있었고 가정은 글쓰기 체계가 없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확인해야 빈칸에 들어갈 흐름을 알 수 있다.

The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early tablets is consistent with administrators needing a lexicon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literacy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많은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두 문장이 문제를 푸는데 별 의미가 없었다고 했는데.. 결코 아니다. 이 두 문장이 빈칸에 들어갈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다!!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원과 가정의 차이(tablet, 즉 글자체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문장에서 필자는 초기의 tablet에서 기호와 그림문자의 사용은 행정가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어휘 목록이 필요했고,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tablet이 있던 사원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반대되는 개념인 가정에서는 tablet이 없으므로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② personal agreements 이 된다.

[나머지 선지는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

① 종교 행사 ③ 공동 책임 ④ 역사적 기록 ⑤ 권력 이동

#### ○ 2021학년도 33번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we now have access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that occur during learning.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our neural networks are as unique as our fingerprints. The latest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brain is much more malleable throughout life than previously assumed; it develops in response to its own processes, to its immediate and distant "environments," and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our neurons communicate to form networks of connected information. Using this knowledge or skill results in structural changes to allow similar future impulses to travel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an others. High-activity synaptic connections are stabilized and strengthened, while connections with relatively low use are weakened and eventually pruned. In this way, our brains are \_\_\_\_\_\_\_\_\_. [3점]

\*malleable: 순응성이 있는 \*\*prune: 잘라 내다

- 1 sculpted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 2 designed to maintain their initial structures
- 3 geared toward strengthening recent memories
- 4) twinned with the development of other organs
- 5 portrayed as the seat of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 ○ 해석

새롭게 개발된 신경 촬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학습 중에 일어나는 특정한 뇌 변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의 뇌 모두는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경망은 우리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 가장 최근의 발달 신경 과학 연구는 뇌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평생 동안 훨씬 더 순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뇌]은 자기 자신의 처리 과정에, 자신에게 인접한 '환경'과 멀리 떨어진 '환경'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여 발달한다. 뇌는 기존의 신경망을 확립하거나 개선하여 의미를 창조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의 뉴런들은 연결된 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해 소통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자극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고 활동성 시냅스 연결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연결은 약해져서 결국에는 잘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의 경험의 이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휘] neuroimaging 신경 촬영 / neural 신경의 / unique 독특한 / previously 이전에 / immediate 인접한, 당면한 / establish 확립하다 / refine 개선하다 / existing 기존의 / impulse 자극 / high-activity 고 활동성의

#### ○ 지문분석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we now have access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that occur during learning.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our neural networks are as unique as our fingerprints.

필자는 첫 두 문장에서 의도를 말한다. 첫 문장이 필자의 의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3번째 문장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 진술) 학습동안 특정한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신경망은 모두 다 다르다

The latest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brain is much more malleable throughout life than previously assumed; it develops in response to its own processes, to its immediate and distant "environments," and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앞서 언급한 것처럼 research를 통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 그러므로 앞부분이 필자의 의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2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malleable라는 단어다. 평가원은 단어의 다의적의미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malleable라는 단어는 EBS도 해설하면서 순응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순응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접할 때, 무언가를 잘 받아드리는 이런 느낌으로 보기 쉬우나 반드시 알아둬라!! 순응성이라는 느낌은 '잘 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단어 공부 빡시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앞서 필자의 의도 파악 설명에서 구체적인 진술속에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반드시체크하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의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을 통해 필자는 학습동안 뇌가 변하는데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여 변한다는 구체적인 필자의 의도를 확립시킨다.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필자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의 핵심의도(과거와 현재에 반응해서 변한다)를 파악하지 못했을까봐 다시한번 강 조하고 있다. 뇌는 신경망을 확립하거나 기존의 이미 확립된 신경망(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이 문장 부터는 부연설명이다. 우리는 이미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필자의 핵심의도를 담고 있는 ① sculpted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선지들은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

- ② 그것의 최초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③ 최근의 기억을 강화하도록 조정된다.
- ④ 다른 기관의 발달과 밀접히 연결된다. 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 그려진다.